

2022년 상반기 고용 · 노사관계 양상과 향후 전망

김 유 빈*

2021년 2분기 이후 본격화된 고용양적 측면에서의 회복세는 2022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 증감이 증가세로 돌아선 2021년 3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올해 6월까지 1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자 외 고용률과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전반적 고용지표가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계절조정계열로도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전 고점인 2020년 2월에 대비한 2022년 6월 취업자 수는 102.4%에 달해, 단순 취업자 수로는 코로나 이전의 고용 수준을 오히려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의 전반적 회복추세하에서 문제시되었던 노동시장 내 부문별 양극화 추세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위기상황 속에서 디지털 · 비대면 촉진으로 상대적 호황을 겪었던 비대면서비스업과 달리, 대면서비스업의 고용회복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더딘 상황이며, 연령별로는 30대 및 40대 고용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불어, 최근에 이르러서는 고용회복세가 두드러졌던 일부 업종의 고용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6월부터는 계절조정 취업자가 전월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심화, 글로벌 공급난 지속 등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역시 고용상황에 있어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시장을 받치고 있는 또 하나의 축인 노사관계 동향에 있어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위험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새 정부가 연금 · 교육개혁, 근로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다방면에서의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표방함에 따라 노사관계에 있어 역시 일정수준의 기초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했고, 연이어 7월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발생하는 등 노사분쟁에 있어서의 긴장상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갈등에 있어서의 사전 위기관리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전략 없이는 노사관계를 둘러싼 일련의 갈등들을 해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2022년 8월호 『노동리뷰』는 2022년 상반기 노동시장, 세부적으로는 고용시장과 노사관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ykim@kli.re.kr).

계에 대한 평가와 하반기 동향을 포함한 2022년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고용동향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회복에 있어서의 부문별 양극화, 하반기 고용회복세 둔화 가능성 등을 경계해야 하겠지만, 감염병 추가 확산과 거시경제 상황에 있어서의 특이점이 발생치 않는다면 2022년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743천 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하반기 고용수준은 상반기에는 못 미치는 546천 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고용률은 전년대비 1.4%p 증가한 61.9%, 실업률은 0.4%p 감소한 3.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경제성장 측면에서 국내의 전망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현재의 회복세를 하반기에도 일정수준 유지하면서 2022년에는 2.7% 내외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취업자 전망 역시 이에 기초하여 추정된 수치이다. 다만, 코로나 신규 변이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거시경제적 위험요인과 더불어 금리인상,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등 고용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수위는 높일 필요가 있다.

상반기 노사관계 흐름을 반영하여 전망한 하반기 노사관계의 전개양상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정부의 정책추진 동력에 일정수준 제동이 걸린 가운데, 하반기에는 디지털·탄소중립 등 산업 전환에 있어서의 구조개혁, 비전형 고용부문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시각차, 임금체계 개편과 주52시간제 개편 등 노사관계에 있어 산적한 문제들의 갈등양상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및 노사정관계의 정립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대화통로가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동향 및 노사관계 전망에 있어 반영된 전망요인들과 부문별 세부 전망은 각 원고를 참고하여 판단하기 바란다.

올해 하반기는 지금까지의 고용회복세가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노동개혁에 있어 노사관계가 나아갈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한지 가름해 볼 만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속히 해소되고, 고용회복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실효를 거두어, 작금의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전환에 있어서의 성공적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노동리뷰』 집필진을 포함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들은 향후에도 지속 제기될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부문별 이슈와 문제점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KL**